

다산학 42호 (2023.6) | 123~158

원대 호병문胡炳文 역학과 정다산의 상수역에 대한 논의

린쥬권林忠軍 | 산동대학 역학과중국고대철학연구센터 교수

목차

- 원대 역학과 호병문 역학의 형성
- 호씨 역학에 대한 다산의 평가
- 호병문 역학이 다산 역학에 미친 영향

1. 원대 역학과 호병문 역학의 형성

원나라 정권 수립 후 제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대다수 한인漢人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법漢法’을 추진했다. “한법이란 정치·경제 제도 외에 그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학을 주체로 하는 사상문화를 핵심으로 한다.”¹⁾ 이를 바탕으로 원나라 제왕들은 공자의 유가를 존송하여 이학가理學家를 매우 칭송했다. 가령 문종文宗은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사마광, 주희, 장식, 여조겸 등을 공묘에 배향하였고, 정주의 이학 저서도 원대의 과거시험 내용으로 정하여, “명경과明經科의 사서오경은 정자와 주자의 주해를 위주로 하였으며, 격물치지와 수기치인의 학문이었다.”²⁾ 과거시험 내용으로 사서는 주자의 『장구(章句)』와 『집주(集注)』를 채택하였고, 각 과목(經義)은 “『시』는 주씨朱氏를, 『상서』는 채씨蔡氏를, 『주역』은 정씨程氏와 주씨朱氏를 위주로 하는 것”³⁾으로 규정하여, 원대에 정주리학의 위상을 공식화했다. 원대의 경학 연구는 공리功利를 위해 전파되고 발전되었으며, 『송원학안宋元學案』에 따르면, 원대 이학에는 허형許衡으로 대표되는 노재학과魯齋學派, 유인劉因으로 대표되는 정수학과靜修學派, 오징吳澄으로 대표되는 초려학과草廬學派, 김이상金履祥·허겸許謙으로 대표되는 북산학과北山學派, 진력陳櫟·호병문胡炳文·주승朱升·예사의倪士毅로 대표되는 신안학과新安學派 등으로 파벌이 많

1) 吳雁南 等 主編, 『中國經學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1, 412쪽. “所謂漢法, 除了指政治、經濟制度以外, 還包括與之相適應的意識形態, 其核心便是以儒學為主體的思想文化.”

2) 拜柱 等, 『科舉類』, 『通制條格』卷五, 浙江古籍出版社, 1986, 69쪽. “明經科內四書五經, 以程子、朱晦庵注解爲主, 是格物致知修己治人之學.”

3) 宋濂 等, 『選舉志一科目』, 『元史』卷八十一, 中華書局, 1973, 2019쪽. “『詩』以朱氏爲主, 『尚書』以蔡氏爲主, 『周易』以程氏、朱氏爲主”

있다고 한다.

역학에 대해 말하자면, 원대의 역학은 송나라 역학을 계승하였다. 정이와 주희의 역학을 주류로 삼아, “원대 역학은 송대 역학의 유업을 계승하였는데, 비록 상수象數·의리義理·도서圖書를 모두 다루었지만, 특히 의리를 중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정주역학을 주류로 삼았고, 그 다음이 상수였다. 원대에는 왕필역학 및 역사로 역을 해석하는 사사역학史事易學, 길흉의 조짐을 논하는 관점, 고역을 중시하는 관점까지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송대 역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⁴⁾ 주희는 『주역』의 점술성을 재정립함으로써 네 분 성인의 역학과 도서학을 구분하며, 역학의 근원을 탐구하였고, 태극설을 재구성하여 정이의 의리역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원대 역학자들은 주희의 역학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그의 역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자역학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여, 주소의 형태로 해석하고 그 뜻을 밝혔다. 상수를 논할 때는 반드시 점술과 도서학을 논하였고, 의리를 논할 때는 태극太極·이기理氣·도기道器·심성心性·이욕理欲 등을 논하였다. 예를 들어, 주희와 동향인 호일계胡一桂는 아버지 호방평胡方平의 가학을 이어받아, 『역본의부록찬소易本義附錄纂疏』와 『역학계몽익전易學啟蒙翼傳』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주자역학의 원형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곡해한 것을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주자의 상수학을 해석한 것이다. 하도·낙서의 문제에서는 주로 주희의 도서학과 선천학을 계승하고 시시비비를 바로 잡아, 유목劉牧과 구양수歐陽修的 하도·낙서관을 비판하였다. 취상에 대한 논의와 취상의 방법은 모두 주자의 상학象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⁵⁾ 또한 장청자張淸子の 『주역본의

4) 徐芹庭, 「元代之易學」, 『孔孟學報』第39期, 1980.

5) 林忠軍, 『象數易學發展史』第二卷, 齊魯書社, 1998, 472~501쪽 참조.

부록집주周易本義附錄集注』에서는 “주자의 설을 확대하였고”, 조채작趙采作의 『주역정주전의절중周易程朱傳義折中』과 웅량보熊良輔의 『주역본의집성周易本義集成』에서는 “여러 역학가들의 장점을 모았으며”, 옹화熊禾의 『물헌역학계몽도전통의勿軒易學啟蒙圖傳通義』와 동진경董真卿의 『주역회통周易會通』은 소옹과 정이와 주희의 역학을 절충하여, 선천학을 바탕으로 정주역학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이러한 융합과 절충은 단순한 양적 규합이 아니라, 소옹과 정이의 역학으로 주자역학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이 외, 일부 역학자들은 주자역학의 저작에 대해 특별히 주석을 달지는 않았지만, 주자역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가령 오징吳澄은 『역찬언易纂言』과 『역찬언외익易纂言外翼』을 저술하여 도서학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도를 『역』의 근원으로 보고, 낙서를 『홍범』의 근원으로 보아, 말의 털과 거북의 껍질로 하도·낙서를 해석하며, 주희 등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자신의 관점을 통해 하도·낙서의 전승을 고찰하여 유목 등의 사상을 비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문을 고증하여 역상易象을 아홉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는데, 그중 수數를 상象으로 삼아, 십수+數를 팔괘에 배합한 것이 독창적이었다. 그는 또한 괘변卦變·호체互體·납갑納甲·효변爻變·괘주卦主 등을 취상取象의 기본 방법으로 삼아, 『주역』의 취상取象을 해석함으로써, 주자의 부족함을 보완했다.⁶⁾ 호병문 역학은 원대 정주역학을 존승하는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호병문胡炳文(1250~1333)은 자는 중호仲虎이고, 호는 운봉雲峰이며, 무원고천婺源考川 사람이다. 그는 주희와 동향으로 역학세가에서 태어났으며, 조부인 호사기胡師夔는 일찍이 주희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오경

6) 위의 책, 502~522쪽.

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역경』에 조예가 깊어 『역전사찬易傳史纂』 등의 전문 서적을 저술하였다. 아버지 호두원胡斗元은 14세에 주희의 종손인 주홍범朱洪範을 스승으로 모시고 『역』을 배웠다. 그는 매일 1개의 효를 완미하여, 7일 동안 1개의 괘를 완미하였는데, 64괘를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며 꾸준히 반복 학습하였다. 그는 천하를 주유하며 역학을 전파한 적이 있는데, 사방의 학생들이 잇달아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 후 고향에 돌아와 50년 동안 교육에 임하였고, 서거할 당시 백여 명의 제자가 선생의 덕행을 추모하며 “고은군자古隱君子”라는 시호를 붙이고, “효선선생孝善先生”으로 존칭했다. 호병문은 주자의 고향에 살면서 가문을 계승하여 주자의 이학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내가 평생토록 주자의 고향에 살면서 선생님의 책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⁷⁾ 유년시절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커서는 경학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부했다. “가학에 전념하고 주자의 학문에 몰두하여, 이정의 학문(伊洛)⁸⁾으로 나아가, 마침내 공자의 학문(洙泗)⁹⁾에 통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였고”, 또한 “모든 제자백가의 학문, 음양과 의복醫卜, 성력星曆과 술수術數는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¹⁰⁾ 일찍이 신주信州의 도일서원道一書院의 훈장을 거쳐 난계주蘭溪州의 학정

7) 胡炳文, 「答定宇陳先生櫟並辭求遺遺詔」, 『雲峰集』 卷一(四庫全書本). “我輩居文公之鄉, 熟文公書, 自是本分中事.” (역자주: 文公은 주희의 시호이다.)

8) 역자주: 伊洛은 정이와 정호 형제가 강학하던 伊川과 洛陽을 가리키므로, 二程의 학문을 의미한다.

9) 역자주: 洙泗는 공자가 강학했다고 전해지는 洙水와 泗水를 지칭하므로, 공자의 학문을 의미한다.

10) 黃宗羲, 「孝善家學·山長胡雲峰先生炳文」, 『宋元學案』 八十九卷, 中華書局, 2007, 2986쪽. “篤志家學, 又潛心朱子之學, 上溯伊洛, 以達洙泗, 靡不推究”; “凡諸子百氏, 陰陽醫卜, 星曆術數, 靡不推究.”

學政¹¹⁾이 되었다. 고향에 명경서원明經書院을 건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면서 훈장으로 초빙되었고, ‘명경의 이름을 따르고 명경의 실상을 취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가 고원하고 기량이 뛰어나며, 경학에 밝고 문장이 아름다운’ 학자를 사방에서 초빙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하였고, 많은 경학 인재를 양성하여 한동안 ‘유가 학풍의 융성함이 동남지역에서 제일’이었다. 거처하는 곳이 산과 마주하였기 때문에, 세호世號는 ‘운봉선생雲峰先生’이었다. 호사기와 호두원, 호병문 3대는 모두 역학의 명가를 계속 이어갔으며, ‘명경호칠현明經胡七賢’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지역의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는데, 조손祖孫 중에서도 호병문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호병문의 학술연구는 주자의 학문을 해석하고 설명함을 위주로 하여, 『시집해詩集解』, 『서집해書集解』, 『춘추집해春秋集解』, 『잡례찬술雜禮纂述』, 『대학지장도大學指掌圖』, 『오경회의五經會義』, 『이아운어爾雅韻語』, 『계몽오찬석啟蒙五贊釋』, 『사서변의四書辨疑』 등의 저서를 저술하였다. 그의 『사서통四書通』, 『운봉집雲峰集』, 『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은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호병문은 역학에 정통하여, 그 저서로는 『주역본의통석』 외에도 『역계몽통의易啟蒙通義』, 『육효반대론六爻反對論』, 『이체상역론二體相易論』이 있다. 그는 역학이 복희·문왕·주공·공자 이래로 천여 년을 거치면서 지리멸렬하고 건강부회한 것이 많아졌으며, 오직 소옹과 정이 그리고 주희만이 역학의 이치를 전승했다고 보았다. 소옹은 희에 밝았고, 정지는 패효사를 연역하였으며, 주자는 소옹과 정자의 학문을 하나로 합하여, 역의 대의가 분명하고 완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주 역학이 아직 완전히 회통되지는 못하였고, 주자의 역학은 모

11) 역자주: 提督學政의 줄임말로 교육행정 장관을 의미한다.

호하고 불명확하다는 결점이 있었다. 그는 “몇 백 명의 사람이 『역』을 해석했지만, 문장의 뜻을 지리멸렬하게 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부회하여 상을 취한 자는 오히려 상을 잃었다. 무릇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상象이라고 한다. 만물의 상이 교묘하거나 졸렬하거나, 치밀하거나 드문 것은 모두 하늘의 조화(天)이다. 그러나 『역』의 취상을 교묘하고 은밀하게 한 것은 하늘의 조화(天)가 아니다. 다만 소자가 선천에서의 획을 밝혔고, 정자는 후천에서의 패효사를 연역하였으며, 또한 주자의 『본의』는 소자와 정자를 하나로 합하였으니, 이것이 복희·문왕·주공·공자의 역에 하늘의 조화를 모은 것이다. 학문에는 반드시 통솔하는 것이 있고, 도에는 반드시 전승됨이 있다. 전승되어 오는 복희·문왕·주공·공자의 역에 도달하려면, 주자 역학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 통솔함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모든 제가들의 『역』 해석이 『본의』가 아니면 일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통솔함과 전승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이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¹²⁾ “『본의』가 『정진』의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며, 일관되지 않은 것을 통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의』를 위주로 통석하였고”, “이 책은 제가의 격언을 융합하여 『역』이 가진 본래 의미의 심오한 뜻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병문은 책이 완성되자 오징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청했다.¹³⁾ 이 저서는 “주자의 『본

12) 「周易本義通釋序」, 『儒藏精華編』第六冊, 北京大學出版社, 2014, 10쪽. “『易』解凡幾百家, 支離文義者無足道, 附會取象者尤失之. 蓋凡可見者, 皆謂之象. 其或巧或拙, 或密或疎, 皆天也. 『易』之取象, 壹是巧且密焉, 非天矣. 惟邵子於先天而明其畫, 程子於後天而演其辭, 朱子本義又合邵、程而一之, 是於義文周孔之易, 會其天者也. 學必有統, 道必有傳. 邇其傳義文周孔之易, 非朱子不能明. 要其統, 凡諸家解『易』非『本義』不能一. 然其統, 其傳, 非人之所能爲也, 亦天也.”

13) 호병문은 오징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판본은 오늘날과 비슷하지만, 그중에는 착오가 있는데, 귀하께서 삭제하고 바로 잡아주신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刊本今以呈似, 中有繆戾,

의』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절충하였고, 또 『역』에 대한 제가의 해석들을 채택하여 분명히 밝혔는데”,¹⁴⁾ 예를 들어 호체의 상으로 『역』을 풀이하고, 상·하경의 효수爻數의 변화로 주자의 ‘교역交易’과 ‘변역變易’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하도의 수가 자연의 상에서 나왔음을 제기하면서, 12 소식괘로 복희원도伏羲圓圖를 해석하였고, 호체와 선천도로 「잡괘전」등을 해석하여, 『본의』와 소자·정자의 역학을 합하여 그 정밀한 의미를 밝혀냈다. 또한 『태극부太極賦』를 지어 음양의 이치, 사람, 인심, 하도·낙서의 중양을 태극으로 삼았다.¹⁵⁾ 이로써 주자의 학설을 보완하고, 주자가 밝히지 못한 점을 밝혀냈다. 사고관신이 “선생의 말씀은 제가의 설을 최대한 제거하였기 때문에, 비록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송유宋儒가 『역』을 설명하는 그 길이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 수를 말하는 자는 교묘함을 잃고, 이치를 말을 하는 자는 천착함을 잃었으나, 그 평정과 통달을 추구하는 자는 따를 만한 방도가 있음이 분명하니, 마침내 주자 역학을 『역』을 올바르게 해석한 모범으로 삼는다면, 호명문 선생이 보좌한 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¹⁶⁾라고 말한 것과 같다.

閣下削之繩之, 幸甚幸甚.)라고 하였다. 胡炳文, 『與草廬吳先生書』, 『雲峰集』 卷一(文淵閣四庫全書本).

14) 永瑤 等,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2008, 24쪽. “據朱子『本義』, 折中是正, 復采諸家易解, 互相發明.”

15) 胡炳文, 『雲峰集』 卷七(文淵閣四庫全書本).

16) 『周易本義通釋提要』(文淵閣四庫全書本). “先生之言, 以盡廢諸家, 雖未免於太狹, 然宋儒說『易』其途至褊, 言數者或失之巧, 言理者或失之鑿, 求其平正通達, 顯有門徑可循者, 終以朱子爲得中, 則炳文羽翼之功亦未可沒矣.”

2. 호씨 역학에 대한 다산의 평가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 여유당(與猶堂), 삼미(三眉), 사암(侯菴)이다. 이씨 조선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경학가이다. 경전에서 시작하여 한대와 송대 역학에 드나들며 역학 연구에 전념하였고, “한·위 역학을 널리 탐구하여, 구가의 설을 채택하였으며, 당·송에 이르러서는 제현들의 논의들을 널리 상고하였다.”¹⁷⁾ 그는 역학사가(易學史家)의 독특한 안목으로 중국 고대 역학사에 있어서 상수와 의리간의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국 한·송 역학을 연구하고 통합하면서 상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학 체계를 형성하였다. 주희는 송대와 송대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자 역학자로, 그가 쓴 『주역본의』, 『역학계몽』은 다산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주요한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 주자역학의 직계인 호병문은 『주역본의』에 대한 해석으로 유명하며, 그가 지은 『주역본의통석』은 명대의 『주역대전(周易大全)』에 수록되어, 명나라 이후 역학연구의 주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다산은 주자의 『주역본의』를 연구하면서 호병문의 『주역본의통석』을 참고하였다. 이에 다산은 주자 역학을 검토할 때도 호병문 역학을 살펴보고 돌이켜 생각하곤 했다.

먼저, 다산은 호병문이 주자역학의 정통 계승자임을 확신하고, 그가 패변과 패상 등의 측면에서 주자 역학을 모두 교정하고 보완하였다고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7) 丁若鏞, 『與尹畏心』, 『文集』三(『定本』제4책, 127쪽).

운봉 호중호의 『역』은 주자의 적전嫡傳이다. 괘변·괘상·괘호의 의미에 대한 그의 설명은 분명하게 밝힌 바가 많지만, 다만 효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른다. 이는 모두 구가九家の 옛 설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¹⁸⁾

다산의 평론을 보면, 상수의 측면에 있어서 주자의 적전인 호병문이 주자역학을 설명할 때, 우선 주자역학을 고수했다고 한다. 가령 주희는 괘변설을 깊이 신뢰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괘변도」를 짓고 괘변으로 『역』을 주석했으며, 호병문은 그것을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호병문은 주자역학을 교정하고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희는 『역』을 해석할 때 호체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호체는 고법古法이므로 폐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누군가 「계사전」의 “사물을 뒤섞는 것과 덕을 가리는 것과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雜物撰德, 辯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의 의미를 물었을 때, 주희는 “선유들은 이것을 대부분 호체로 여겼다. 가령 준屯괘¹⁹⁾는 진震이 아래에 있고 감坎이 위에 있는데, 중간에 4개의 효를 보면, 2호에서 4호까지는 곤坤이 되고, 3호에서 5호까지는 간艮이 되므로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其中爻不備.)라고 한 것이다. 호체설은 한 유들이 많이 사용했다. 『좌전』에서 점쳐서 관觀괘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18) 丁若鏞,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4책, 142쪽). “雲峰胡仲虎之『易』朱子之嫡傳也. 其說於卦變, 卦象, 卦互之義, 多所發明, 獨於爻變之義, 尚昧昧耳. 是皆足以恢復九家之舊者.”

19) 역자주:屯괘는 방인·장정육의 『역주주역사전』 번역에 따라 ‘준괘’로 칭함. 이하 다산의 『주역사전』의 번역은 위의 번역서를 참고함.

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를 보아 이 설은 폐기할 수 없다.”²⁰⁾라고 지적했다. 호병문도 호체는 폐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산은 주자의 “호체는 폐기할 수 없음”을 인용한 후, “호병문과 홍매洪邁 역시 호체를 폐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였다.²¹⁾ 호병문은 『주역본의』를 해석할 때 호체를 널리 사용했다. 예를 들어, 주자가 대장괘 육오효에 대해 “괘체는 태兌괘와 비슷하고 양羊의 상이 있다.”라고 주석하여, 분명히 호체를 사용하면서도 ‘호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호병문은 주자의 호체를 명확하게 해석하며 “호체인 태괘에 양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는 주자의 『본의』를 해석하면서 호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진震괘 육이효에 “호체인 간艮괘에는 언덕(陵)의 상이 있다.”라고 주석하였고, 점漸괘 초육효에서는 “호체인 감坎괘에는 물의 상이 있다.”, 환渙괘의 육사효에는 “호체인 간艮괘에는 언덕(丘)의 상이 있다.”라고 주석했다.²²⁾ 이에 다산은 호병문이 주자역학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한 바가 많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하였다.

둘째, 다산은 주자역학을 해석한 호병문의 합리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호씨역학 자체가 가진 가치도 보았다. 가령 괘변설의 경우, 다산은 호병문의 해석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본의』에서 “환渙괘는 점漸괘에서 온다.”라고 하였는데, 호병문은 “『본의』에서 ‘점괘로부터 온다.’는 것은 송訟괘가 둔遯괘로부터 온 것처럼, 삼효가 이효로 내려온

20) 黎靖德, 『朱子語類』 卷六十七, 中華書局, 2007, 1957쪽; 丁若鏞,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43쪽). “先儒解此多以爲互體：如屯卦震下坎上，就中間四爻觀之，自二至四則爲坤，自三至五則爲艮，故曰‘非其中爻不備’。互體說，漢儒多用之。『左傳』中一處說占得觀卦處亦舉得分明。看來此說亦不可廢。”

21)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45쪽). “胡炳文、洪邁亦以互體爲不可廢。”

22)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43쪽). “互艮有陵象”, “互坎有水象”, “互艮有丘象”

것이며, 또한 ‘강이 와서 중을 얻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송訟괘와 환渙괘는 모두 하괘의 삼효와 이효가 바뀐 것이며, 송괘에서 득위를 말하지 않은 것은, 환괘의 이효가 사효로 올라갔기 때문에, ‘외괘에서 득위하였다’고 한 것이다. 송괘는 삼효 자리에 음인 6이 있기 때문에 득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호중호가 ‘이효가 사효로 갔다’고 한 것이 환괘가 비괘에서 온 것임을 일컫는다. 그 뜻이 매우 정확하다.”라고 하였다.²³⁾

그리고 다산은 주자와 호병문의 괘상설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역』에 대한 호병문의 설명 가운데 괘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곤坤괘는 수레이고, 감坎괘는 수레바퀴이며【사師괘의 육삼효】, 태兌괘는 호랑이고【리履괘의 단사】, 건乾괘는 큰 수레이며【대유大有괘의 구이효】, 태兌괘와 간艮괘는 서쪽 산이고【수隨괘의 상육효】, 간艮괘는 식물의 열매이며【박剝괘의 상구효】, 손巽괘는 노끈이고【구姤괘의 초육효】, 간艮괘는 소자이며【점漸괘의 초육효】, 간艮괘는 돌이고【점漸괘의 육이효】, 진震괘는 광주리이며【귀매歸妹괘의 상육효】, 태兌괘는 양이고【귀매歸妹괘의 상육효】, 이離괘는 전쟁무기이며【손巽괘의 상구효】, 간艮괘는 사당이고【환渙괘의 단사】, 감坎괘는 그릇이다【환渙괘의 상구효】.”²⁴⁾ 이상에서 열거된 괘상은 대부분 『설괘전』에 보이지 않는다. 당대 육덕명이 『경전석문』

23)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41쪽). “『本義』‘自漸來’, 蓋如訟自遷來, 三來居二, 亦曰‘剛來得中’也.”; “訟與渙, 皆下卦三與二之變, 訟不言得位者, 渙二往居四, 故曰得位乎外, 訟以六居三, 則不得位矣.”; “胡仲虎之云‘二往居四’者, 謂卦自否來也. 其義甚正.”

24)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42쪽). “坤爲與, 坎爲車輪【師六三】, 兌爲虎【履之象】, 乾爲大車【大有九二】, 兌艮爲西山【隨上六】, 艮爲果蓏【剝上九】, 巽爲繩【姤初六】, 艮爲小子【漸初六】, 艮爲石【漸六二】, 震爲筐【歸妹上六】, 兌爲羊【歸妹上六】, 離爲戈兵【巽上九】, 艮爲廟【渙之象】, 坎爲血【渙上九】.”

의 「설패전」 뒤에 순상구가역²⁵⁾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설패전」에 없는 팔괘의 형상이 있는데, 이를 후세 사람들은 ‘일상逸象’이라고 부른다.²⁶⁾ 다산은 「설패전」에 보이지 않는 호병문의 ‘일상’은 “모두 구가의 옛 설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 다산은 한대 역학인 상수학을 숭상하였으며, 구가역학이 한·위 역학인 상수학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특히 순상·우번·구가역의 역학을 높이 평가하며, 순상·우번·구가 등의 상수와 훈고가 “경전의 뜻에 대부분 부합한다.”라고 여겼다.²⁷⁾ 그러므로 “구가의 옛 설을 회복한 것”이라는 평가는 찬사에 속하며, 즉 호병문의 역상에는 한대 상수학을 회복한 공이 있음을 칭송한 것이다.²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산은 호병문을 주자 역학의 정통 계승자로 간주하고 그의 역학이 과상·괘변·호체 등에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 역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하였다. 그러나 호병문이 “주석은 경서를 해치지 않고, 소는 주석을 해치지 않는다.”(注不破經, 疏不破注.)라는 고대 경학의 원칙에 따라 주자역학을 해석하고, 그의 역학은 주자역학을 모범으로 하여 해석상에 객관성과 진실성을 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주자역학에 존재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극복하지 못한 폐단이 있음은 자명하다. 이를 계기

25) 순상구가역에 대한 고대의 견해는 다르다. 필자는 『구가역』은 荀爽, 京房, 馬融, 鄭玄, 宋衷, 虞翻, 陸績, 姚信, 翟玄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적현 후학의 작품이다. 필자의 『九家易考辨』(劉大鈞主編, 『象數易學研究』第一輯, 齊魯書社, 1996)을 참고하라.

26) 다산은 「설패전」에 나오는 팔괘의 상을 ‘物象’이라고 불렀다. 구가역의 ‘逸象’에 대해 다산은 “순구가가 물상을 언급한 것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어 완전히 믿을 수 없다.”(荀九家之言物象, 有正有謬, 不可全信.)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7) 丁若鏞, 「李鼎祚集解論」, 『易學緒言』卷一(『定本』 제17책, 53쪽).

28) 다산이 漢代 象數學을 숭상하는 내용은 「다산의 한대 상수역학에 대한 검토와 평가」(『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를 참고하라.

로 다산은 주자역학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호씨역학에 반박했다. 가령 다산은 호병문의 괘변설에 대해 비판하였다. 주지하듯이, 한대의 순상과 우번 등은 괘변을 주장하였는데, 송대 주진과 주희 등은 찬성하였고, 진나라 사람인 왕필 등은 반대하였다. 양파의 쟁점은 『역전』의 괘변 유무가 괘변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중 「계사전」의 ‘사물을 뒤섞는 것과 덕을 가리는 것(雜物撰德)’과 「단전」의 “음양·대소·상하·왕래”에 대한 해석은 역학사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괘변설을 인정하는 입장은 모두 「계사전」과 「단전」에 관련된 구절을 근거로 하는 반면, 괘변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계사전」과 「단전」에 관련된 구절을 괘변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무망无妄괘의 「단전」에 ‘강은 밖에서 왔으나 안에서 주인이 된다(剛自外來而主於內)’라는 구절에 대한 것으로, 논쟁이 특히 격렬했다. 다산은 구부국丘富國, 호정방胡庭芳, 서기徐幾, 호병문 등의 관점을 열거하며, 「단전」의 ‘강은 밖에서 왔으나 안에서 주인이 된다(剛自外來而主於內)’는 구절이 괘변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 구부국은 송訟괘를 논하면서 “강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것은 괘변이다.”라고 하였다. 호방평은 비否괘를 논하면서,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왔다(大往小來)”는 것은 괘변이다. 비否괘는 태泰괘에서 오는데, 세 개의 양효가 밖으로 가고, 세 개의 음효는 안으로 왔다.”라고 하였다. 서기는 무망괘를 논하면서, “강은 밖에서 왔으나 안에서 주인이 된다(剛自外來而爲主於內)”를 괘변으로 말하자면, 하괘가 체體가 되고, 건乾이 곤坤과 사귀어 진震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호병문은 무망괘에 대해 “강이 밖에서 왔다”는 것은 외괘가 건乾【무망은 즉 하늘의 우레】이니, 진震의 강이 건괘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⁹⁾ 다산은 호방평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 외에도, 호병문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비판하며, “호병문의 설은 특히 『역』의 사례가 아니다. 무망괘에서 그 건괘의 3양은 그대로 있는데, 어찌 건괘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³⁰⁾ 괘변은 반드시 음양의 두 효가 서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견해이다. 무망괘의 상괘는 건乾이고 하괘는 진震이다. 건괘의 3양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 무망괘의 하괘인 진괘의 1양이 건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망의 하괘인 진괘의 1양이 본래 상괘인 건괘에서 왔다는 것은 괘변이 아니다.

다산은 호병문이 괘기설로 『역』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주희와 호병문은 괘기설로 임臨괘를 해석했는데, 『주역본의』에서는 임괘의 ‘8월에 이르러 흉사가 있다(至於八月有凶)’는 구절을 “8월은 1개의 양이 있는 복復괘의 달에서 2개의 음이 있는 둔遯괘의 달에 이르는 것이니, 음이 자라고 양이 숨는 달이다. 흉사가 말하기를, ‘8월은 하나라 역법상의 팔월이다.’라고 하니, 괘에 있어서는 관觀괘가 되며, 또한 임臨괘와는 반대이다.”라고 주석하였다.³¹⁾ 호병문은 임괘 「단전」의 “8월에 이르러 흉사가 있다”는 것은 소멸됨이 멀지 않은 것이다.”(至於八月有凶, 消不久也.)에 대해, “관괘는 4음효의 의미를 취하지 않는데, 임괘에서 ‘8월에 이르러 흉사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관괘가 8월괘인 것이 여기에

29)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8-139쪽). “剛自外來’者, 外卦爲乾【無妄即天雷】; 震之剛, 自乾來也.”

30)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9쪽). “案胡炳文之說, 尤非『易』例, 无妄, 其乾之三陽, 完然無缺, 豈可曰自乾來乎?”

31)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卷一, 『儒藏精華編』 第6冊, 北京大學出版社, 2014, 82쪽. “八月, 謂自復卦一陽之月, 至於遯卦二陰之月, 陰長陽遁之時也. 或曰: 八月謂夏正八月, 於卦爲觀, 亦臨之反對也.”

서 나타난다.”³²⁾라고 하였다. 다산은 원문의 뜻을 근거로 호병문이 괘 기설을 가지고 8월을 관괘의 달로 해석한 것에 반대하였다. 다산은 임괘 「단전」의 “임괘는 강이 점차적으로 자라나며 … 8월에 이르러 홍사가 있고, 소멸됨이 멀지 않다.”(臨, 剛浸而長, … 至於八月有凶, 消不久也.)에 대해, “호병문이 8월을 관괘의 달로 보았는데【하나라 역법상의 8월】, 이는 반역反易의 논리에 따라 상을 취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멸됨이 멀지 않은 것(消不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공자는 둔遯괘의 「단전」에서도 ‘점차적으로 자라난다’【음의 자라남】라고 하였으니, (이는 臨괘의 구절과 함께) 서로 대응한다. 8월이 둔괘의 달임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다산의 견해에 따르면, 『역』에는 세 가지 역이 있다. 하나는 반역反易이라고 하며, 가령 임괘의 반역이 관괘에 해당한다. 둘째는 교역交易이라고 하며, 가령 임괘의 교역은 취괘에 해당한다. 셋째는 변역變易이라고 하며, 임괘가 둔괘로 변하는 것과 같다. 임괘의 2양은 지금은 비록 점차 자라나지만, 만약 둔괘의 달(주나라 역법상의 8월)에 이르면, 2양은 소멸된다(둔괘의 2음이 됨). 그러므로 ‘8월에 이르러 홍사가 있다(至於八月有凶)’고 한 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변역으로 8월을 해석하며, 주자와 호병문이 반역으로 8월을 해석한 것에 반대하고, 주자와 호병문의 해석이 「단전」의 뜻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 여기에서 지적할 점은 다산이 12소식괘로 임괘를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괘기설 중의 12소식괘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에 그는 12소식괘를 바탕으로 추이설을 세워 『역』을 주석

32) 위의 책, 241쪽. “觀卦不取四陰爲義, 於臨曰‘八月有凶’, 則觀爲八月卦已見於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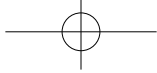
33) 丁若鏞, 『周易四箋』 卷三(『定本』 제15책, 249쪽). “案胡炳文以八月爲觀卦之月【夏正之八月】, 次以反易取象也. 若然, ‘消不久’一語, 何以解之? 又按孔子於遁之象亦云‘浸而長’【陰之長】文相照也, 八月之爲遯卦之月, 審矣.”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산은 호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호병문이 호체로 「잡괘전」을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주자는 『본의』의 「잡괘전」에서 “대과괘 다음부터는 괘가 반대되지 않으니, 혹 착간인지 의심스러우나 협운으로 보면 또 오류가 아닌 것 같으니,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³⁴⁾ 호병문은 “사물을 뒤섞는 것과 덕을 가리는 것과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에 4개 효의 호체를 말한 것이다. 「선천도」의 왼쪽에는 호체가 복復·이頤·기제既濟·가인家人·귀매歸妹·규睽·괘夬·건乾 등의 여덟 괘가 있고, 오른쪽에는 호체로 구姁·대과大過·미제未濟·해解·점漸·건蹇·박剝·곤坤 등 여덟 괘가 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는 구姁·대과大過·미제未濟·점漸 등의 네 괘를 취하고, 왼쪽에서는 이頤·기제既濟·귀매歸妹·괘夬 등의 네 괘를 취한다. 각각 그 절반으로 나머지를 곱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³⁵⁾ 다산은 “호병문의 설은 마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왼쪽의 절반과 오른쪽의 절반만 취하고 남은 여덟 괘는 또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대체로 ‘잡괘’라는 두 글자는 옛 호괘의 명칭과 비슷하지만, 「잡괘」편 중에서 여러 괘의 뜻은 여전히 호괘의 설이 아닌 본괘의 사辭를 찬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함은 먹는 것이다.’, ‘고는 가지런히 다스림이다’, ‘명이는 부상을 입는 것이다.’, ‘수는 나아가지 않음이다.’와 같은 부류가 어찌 호괘의 의

34)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卷十, 『儒藏精華編·經部易類』, 第6冊, 北京大學出版社, 2014, 375쪽. “自大過以下, 卦不反對, 或疑其錯簡, 令以韻協之, 又似非誤, 未詳何義.”

35)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卷十, 『儒藏精華編·經部易類』, 第6冊, 376쪽. “雜物撰德, 非其中爻不備, 此蓋指中四爻互體而言也. 先天圖之左, 互復、頤、既濟、家人、歸妹、睽、夬、乾八卦. 右互姁、大過、未濟、解、漸、蹇、剝、坤八卦. 此則於右取姁、大過、未濟、漸四卦, 於左取頤、既濟、歸妹、夬四卦. 各舉其半, 可兼其餘矣.”



미쳤는가? 잠시 의문을 품고 깨닫게 되기를 기다린다.”라고 지적하였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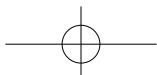
동시에 다산은 호씨 역학의 효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자는 효변을 말하고 호병문은 효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앞에서 “효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 효변은 다산 역학의 중요한 체제이며, 그의 상수학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효변이 역학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역학의 핵심이며, 효변이 없으면 다른 상들은 모두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³⁷⁾ 그는 “효가 변하지 않으면, 추이법도 통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추이법이 사라진 이유인 것이다. 효가 변하지 않으면, 「설괘전」의 물상도 모두 부합하지 않게 되며, 「설괘전」의 용도가 폐기되다시피 된 것이다. 효가 변하지 않으면, 호체의 물상도 모두 합치되지 않게 되니, 이것이 호체가 도외시된 까닭이다.”³⁸⁾라고 하였다.

사실, 효변설에 대한 다산의 비판은 주자와 호씨의 역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 역학 전체를 향한 것이다. 그는 중국 효변설이 전승되지 않았고, 경방京房을 제외하고는 한·위 이래의 역학자들이 효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한대 이후로 효변설은 단절되어 전승

36) 丁若鏞, 『李氏折中抄』, 『易學緒言』 卷三(『定本』 제17책, 236쪽). “胡說似乎有據, 而左半右半, 所餘八卦, 則又散亂無次. 何以解之? 大抵‘雜卦’二字, 似古互卦之稱, 而篇中諸卦之詁訓, 仍贊本卦之詞, 非互卦之說. 如‘噬嗑, 食也.’, ‘蠱則飭也’‘明夷, 誅也’, ‘需, 不進也.’之類, 豈互卦之義乎? 且當闕疑, 以俟知者.”

37) 다산의 효변설에 관한 내용은 林忠軍의 「中國爻變說與韓國丁若鏞爻變哲學」(『學術月刊』, 2018, 第10期)을 참조하라.

38)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51~52쪽). “爻不變, 則推移之法亦不可通. 此推移之法所以廢. 爻不變, 則『說卦』物像亦皆不合, 此『說卦』之所以廢. 爻不變, 則互體之物亦皆不合, 此互體之所以廢.”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역』의 이치가 어두워진 까닭이다.”³⁹⁾라며, “한나라 경방이 『역』을 설명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참위설에 미혹되어 길조와 흉조를 터무니없이 꾸며대기는 하였지만, 효사가 괘획의 변화에 의거한 것임을 몰랐던 적은 없었다. 마옹·정현·순상·우번 이래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런 사실이 잊혀지고 무시되어 천년의 길고 어두운 밤이 됨에, 세 분 성인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효가 변하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게 되고, 물상이 부합하지 않으면, 「설괘전」도 따라서 폐기됨에 『주역』을 해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⁴⁰⁾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천년의 길고 어두운 밤이 됨에, 세 분 성인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다산이 효변설을 전승한 것 같다.⁴¹⁾

3. 호병문 역학이 다산 역학에 미친 영향

주희의 『주역본의』는 주로 『정씨역전』을 인용하여 『역』을 주석하였는데, 이는 정이의 역학이 주희역학의 중요한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이의 역학은 왕필이 개척한 의리역의 전통을 따르면서 유학의 이치를 밝히고 있고, 주희의 역학은 정씨의 의

39) 위의 책, 51쪽. “自漢以來，爻變之說，絕無師承，此『易』之所以晦盲也。”

40) 丁若鏞, 「系辭上傳」, 『周易四箋』 卷八(『定本』 제16책, 278쪽). “至漢京房之說『易』也，雖識緯誕妄，曲成禎咎，而爻詞之主乎變，未嘗不知之，一自馬融，鄭玄，荀爽，虞翻以來，不知何故，遂遭泯昧，千年長夜，無復三聖之舊義，不亦悲哉？爻不變，則象不合，象不合，則「說卦」從而廢，而『易』不可讀矣。”

41) 漢儒들의 효변설에 대한 다산의 비판에 관해서는 林忠軍의 「다산의 한대 상수역학에 대한 검토와 평가」(『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를 참조하라.

리학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역』의 본래 의미 회복과 도서학 탐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수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의리를 중시하고 상수를 소홀히 하는 반면, 후자는 상수를 중시하되 의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자의 적전인 호병문은 정주역학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그는 『주역본의통석』에서 『정씨역전』을 많이 인용하여 정주역학을 회통시켰으며, 주희가 상수와 의리로 『주역』을 주석한 것은 정이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그는 주희의 건乾괘 주석에 소를 쓸 때 “『본의』에서 ‘1은 기수이며, 양수이다.’라고 한 것은 상象으로 말한 것이다. ‘건괘는 군세다는 뜻이며, 양의 본성이다.’고 한 것은 이理로 말한 것이다. 정자가 ‘지극히 은미한 것이 이理이며, 지극히 드러나는 것은 상이다.’라고 하였다.”라고 밝혔다.⁴²⁾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산도 정주역학이 일맥상통함을 주장하며, 정주역학을 회통시키려고 노력했다. 다산은 상수에 정통하였다. 괘변설을 예로 들자면, 주자의 괘변은 정자의 괘변과 완전히 달랐다. 정자는 건·곤이 다른 괘를 생성시킴을 괘변으로 여겼는데, 주자는 건·곤이 십이소식괘를 생성하고, 다시 12소식괘가 다른 괘를 생성한다고 보았다. 주자 본인도 정자의 괘변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천은 괘변설을 취하지 않으면서, ‘유가 내려와서 강을 꾸미고, 강이 밖에서 와서 안에서 주인이 되었다.’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억지 설명을 했다. 왕보사의 괘변설 역시 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의 설은 도리어 자연스런 기상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 효만 바꾸었을 뿐이다. 성인이 억지로 이렇게 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괘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니, 자연히 이런 기상이 있

42)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卷一, 『儒藏精華編』, 15쪽. “『本義』曰: ‘一, 奇也, 陽之數也’, 從象上說. ‘乾健也, 陽之性也’, 從理上說. 程子曰 ‘至微者理, 至著者象.’”

는 것이다.”⁴³⁾라고 명확히 말하였다. 다산은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그의 견해를 부인하며, 정자의 괘변설이 주자의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고대 역법이라고 보았다. 다산은 “이천의 『역전』에 수隨·고蠱·항恒·비賁괘에서 모두 추이법을 사용한 것은 그 글에서 나타난다. 주자가 매번 ‘이천이 괘변설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평소의 논의를 생각해보면, 괘변이라고 이름붙이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추이의 의미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⁴⁴⁾라고 하였다. 다산이 보기에 비록 주자는 정자의 괘변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자가 괘변설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정자의 괘변설을 취하였던 것이다. 다산은 “정자의 설명은 대개 왕필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 추이의 의미는 『역』이 『역』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취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⁵⁾ 물론 『정전程傳』과 『본의』를 융합하여 절충한 것은 호병문 및 원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남송에서 시작되었다. 가령 남송 동해董楷가 찬술한 『주역전의부록周易傳義附錄』에서는 “『역』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오직 정주학(洛閩)⁴⁶⁾만을 종주로 삼아, … 정자의 『역전』과 주자의 『본의』를 한 책으로 묶고, 두 사람이 남긴 학설을 모아서 그 아래에 부록으로 실어, 의리와 상수에 모두 통하도록 하였

43) 黎靖德, 『卦體卦變』, 『朱子語類』 卷六十七, 中華書局, 2007年, 1666쪽. “伊川不取卦變之說, 至‘柔來而文剛, 剛自外來爲主於內’諸處, 皆牽強說了. 王輔嗣卦變, 又變的不自然. 某之說, 卻覺得有自然氣象, 只是換了一爻, 非是聖人合下作卦如此, 只是卦成了, 自然有此象.”

44)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3쪽). “伊川『易傳』, 於隨、蠱、恒、賁諸卦, 皆用推移之法, 其文曆焉. 朱子每云‘伊川不取卦變’, 不知何故. 意其平日議論, 謂不當名之曰卦變, 而推移之義則未嘗不取也.”

45)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8쪽). “程子之說, 蓋本王弼. 然此推移之義, 是『易』所以爲『易』也. 故朱子有取焉.”

46) 역자주: 정자는 洛陽 사람이고 주자는 閩中 사람이므로, 洛閩은 정주의 학문을 의미한다.

고, 또한 정주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주학을 더욱 보충하고, 역측과 건강 부회한 것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옛 설을 근거로 삼는 외부 학자를 참고 하였다. 정자의 『역전』은 왕필본을 사용하고, 주자의 『본의』는 여조검이 정한 고본古本을 사용하였다. 『정전』을 앞에 두어 표본으로 하고, 주자의 『본의』를 나누어서 『정전』 뒤에 붙였다.⁴⁷⁾라며, 이미 정주의 설을 조 화시켰다.

동시에, 다산은 괘변·호체·팔괘의 상 등에서 호병문 역학의 영향을 받았다. 가령 주자는 괘변을 논하면서, 괘변도를 만들어 『주역본의』 1 권에 열거하였고 괘변설로 원문을 해석하였다. 호병문은 『주역본의』를 괘변설로 해석했고, 다산도 괘변(추이설)을 언급하며 괘변설로 『역』을 주석했다. 그는 주자의 괘변도가 한대 이후의 괘변설을 계승한 괘변설의 정통이라고 여겼는데, “대저 괘변설은 한대에서 송대에 이르기 까지 끊이지 않았고, 주자에 이르러서는 크게 드러났다.”⁴⁸⁾라며, “주자의 괘변도는 추이의 정법⁴⁹⁾이고, “추이라는 것은 주자의 뜻이다.”⁵⁰⁾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병문의 많은 해석들은 주자의 『본의』에 부합한다. 이로부터 다산은 ‘추이설’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추이란 무엇인가? 동지에 양陽 하나가 처음 생겨나는데, 그 괘는 복復괘에 해당된다. 이것이 임臨괘로 되고 태泰괘로 되어 건乾괘에 이르게 되면 여섯 양이 이에 완성된다. 하지에 음陰 하나가 처

47) 永裕撰, 『周易傳義附錄提要』,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2008, 19쪽.

48) 丁若鏞, 『朱子本義發微』,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8쪽). “大抵卦變之說, 自漢至宋, 綿綿不絕, 至朱子而大著.”

49) 丁若鏞, 『易學緒言』 卷二(『定本』 제17책, 135쪽). “朱子卦變圖者, 推移之正法也.”

50) 丁若鏞, 『四箋小引』, 『周易四箋』(『定本』 제15책, 31쪽). “推移者, 朱子之義也.”

음 생겨나옴에, 그 괘로는 구姤괘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둔遯괘가 되고, 비조괘로 되어, 곤坤괘에 이르게 되면 여섯 음이 이에 완성된다. 이상 12괘가 이른 바 '사시괘'이다. 소과괘는 대감이며, 중부괘는 대리이다. 감坎은 달이고, 이離는 해인데, 그 나머지를 모아서 윤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재윤괘'이다.⁵¹⁾

다산의 추이설은 바로 괘변설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건·곤의 소식消息이 12소식괘를 생성하며, 이것이 12달이 된다. 즉 곤坤은 양이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 복復·임臨·태泰·대장大壯·괘夬·건乾이 되고, 건乾은 음이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 구姤·둔遯·비조·관觀·박剝·곤坤으로 구분된다. 12달 괘는 사시괘이며, 소과괘는 대감이고, 중부괘는 대리이므로, 소과괘와 중부괘는 윤달괘가 된다. 따라서 12소식괘는 음양이 오르락내리락하여 다른 괘를 생성시킨다. 이는 다산이 “1양괘는 모두 복復괘와 박剝괘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간 것이며, 1음괘는 모두 구姤괘와 괘夬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간 것이다. 사師·겸謙·예豫·비比괘는 복復괘와 박剝괘가 추이한 것이다. 동인同人·이履·소畜小畜·대유大有는 구姤괘와 괘夬괘가 추이한 것이다. 2양괘는 모두 임臨·관觀·소과小過괘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간 것이다. 2음괘는 모두 둔遯·대장大壯·중부中孚괘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간 것이다.”⁵²⁾라고 말한

51) 丁若鏞, 『括例表』,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34쪽). “推移者, 何也? 冬至, 一陽始生, 其卦爲復, 爲臨, 爲泰, 以至於乾則六陽乃成. 夏至一陰始生, 其卦爲姤, 爲遯, 爲否, 以至於坤則六陰乃成, 此所謂四時之卦也. 小過者, 大坎也. 中孚者, 大離也, 坎月離日, 積奇爲閏, 此所謂再閏之卦也.”

52) 丁若鏞, 『推移表直說』,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38-39쪽). “一陽之卦皆自復, 剝而升降之, 一陰之卦, 皆自姤, 夬而升降之. 師、謙、豫、比者, 復、剝之所推移也. 同人、履、小畜、大有者, 姤、夬之所推移也. 二陽之卦, 皆自臨、觀、小過而升降之. 二陰之卦, 皆自遯、大壯、中孚而升降之.”

바와 같다. 따라서 다산의 추이설은 주자와 호씨역학의 괘변설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것이다. 물론 다산의 추이설은 주자와 호병문의 괘변설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첫째, 주자와 호병문의 괘변설에서는 소과괘와 중부괘를 12벽괘로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주자와 호병문은 괘변을 역易의 의미 중 하나로 보았는데, 이는 다산이 추이설을 역의 대의로 보는 것과 다르다. 셋째, 주자와 호병문의 괘변설은 1음·1양괘, 5음·5양괘, 2음·2양괘, 4음·4양괘, 3음·3양괘에 따라 중복되는 괘가 많다. 그러나 정약용이 한대의 괘변설로 괘변을 설명하는 것에는 중복되는 괘가 없다.⁵³⁾

주자는 호체를 버릴 수 없는 역학의 고법으로 간주하였고, 호병문은 이러한 주자의 관점을 계승하며 호체로 주자의 『주역본의』를 해석했다. 다산도 호체를 논하며 호체로 『역』을 주석하였다. 그는 호체가 주자의 『역』 해석방법이라고 여기며, “호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괘가 이미 만 들어지면 6획(六體)이 서로 연결되어, 그중에서 2호에서 4호까지, 3호에서 5호까지가 각각 하나의 괘를 이루니, 이것을 호체라고 한다.”⁵⁴⁾라고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 여섯 호를 가리키는 중괘가 있고, 여기에 호체가 존재한다. 6획괘 중에서 3획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괘가 되고, 각각의 괘는 상괘와 하괘의 3획 외에도, 2·3·4호와 3·4·5호를 각각 연결하여 3획괘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호체라고 한다. 물론 다산의 호체는 호병문의 것보다 복잡하다. 호체를 대호大互·겸호兼互·도호倒互·양호兩互로 나누기 때문이다. 대호는 “대체란 것은 호체를 확대

53) 林忠軍, 「다산의 한대 상수역학에 대한 검토와 평가」, 『다산학』 25호, 2014(『周易研究』, 2015年 第3期).

54)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34쪽). “互體者, 何也? 重卦既作, 六體相連, 自二至四, 自三至五, 各成一卦, 此之謂互體也.”

한 것”을 말한다. 가령 손괘는 1호부터 4호까지 대감大坎이 되고, 정괘는 1호부터 5호까지 대감大坎이 되며, 진괘는 1호부터 4호까지 대리大離가 되고, 준괘는 1호부터 5호까지 대리大離가 된다.⁵⁵⁾ 겸호는 “겸체라는 것은 한 괘를 통하여 호체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건·곤은 각각 겸획하면 대건大乾과 대곤大坤이 되고, 임괘는 겸획한 대진大震이며, 둔괘는 겸획한 대손大巽, 소과괘는 겸획한 대감大坎, 중부괘는 겸획한 대리大離이다. 도호는 “도체라는 것은 괘의 성질이 모두 발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감괘에는 2·3·4호의 뒤집힌 간艮과 3·4·5호의 뒤집힌 진震이 있다. 이괘에는 2·3·4호의 뒤집힌 태兌와 3·4·5호의 뒤집힌 손巽이 있다. 양호는 “양호작괘라는 것은 일단 호체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괘가 형성되는 것이지, 억지로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것은 중간의 4개호를 가지고 양호로 괘를 만들면 64괘가 16괘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3·4호체와 3·4·5호체는, 예를 들어 건乾·대과大過·구휼·괘夾괘를 양호하면 건乾괘가 되고, 곤坤·이颐·복復·박쇄괘를 양호하면 곤坤이 된다. 이와 같이 미루어나가 64괘를 양호하면 32괘가 되고, 중복된 것을 빼면 16괘가 된다.⁵⁶⁾ 16괘를 다시 호체괘로 만들면 4괘를 얻게 되며, 바로 건乾·곤坤·기제既濟·미제未濟이다. 즉 “양호작괘는 16개의 괘만 가능한데, 이 16괘는 각각 4개의 괘를 포함한다.”라는 것이다.⁵⁷⁾

“주자는 대장괘에서 태兌괘를 양으로 보고, 여旅괘에서 이離를 썸으

55)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43~45쪽). “大體者, 互體之大者也” “巽, 一至四爲大坎, 鼎, 一至五爲大坎, 震, 一至四爲大離, 屯, 一至五爲大離.”

56)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44~48쪽). “兼體, 通一卦而取互者也.” “倒體者, 卦才欲全用也.” “兩互作卦者, 既取互體, 自然成卦, 非苟爲是工巧也.”

57) 다산의 양호괘에 관해서는 방인의 『茶山의兩互作卦法』(『周易研究』, 2017年 第5期)를 참고하라.

로 보는데, 이처럼 물상을 「설괘전」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주자의 뜻이다.⁵⁸⁾라고 한 것처럼, 주자는 팔괘의 괘상을 중시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호병문은 팔괘의 상으로 『주역본의』를 해석했다. 다산은 괘상을 역학의 4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꼽는다. 그는 “물상은 무엇인가? 「설괘전」에서 건乾은 말의 상징이라고 하고, 곤坤은 소, 감坎은 돼지, 리離는 꿩의 상징이라고 한 그러한 종류를 말한다. 문왕과 주공이 역사易辭를 짓고 엮을 적에 한 글자 한 문장마다 모두 물상을 취했으니, 「설괘전」을 버리고 『역』을 이해하고자 함은 육률六律을 버리고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것을 물상이라 한다.”라고 하였다.⁵⁹⁾ 그가 말하는 ‘물상’은 「설괘전」의 팔괘의 상이다. 그는 『역』의 괄효사에서 취한 상은 모두 「설괘전」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역』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물상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유의 ‘일상逸象’설을 인정하며 「설괘전」에 일상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구가의 신설新說에는 바른 것도 있고 그릇된 것도 있으므로 하나하나 정정하였고, 또한 (「설괘전」 원문에는 나오지 않으나) 역사易辭에 근거가 있는 것은 취하여 (물상의 사례로) 대략 보충하여 넣었다.”⁶⁰⁾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건乾은 화살·계단·교외·종족·손님·파리함·부유함·흰색이 된다고 보완하였고, 곤坤은 밭·친구·피부·온화함이 된다고 보완하였으며, 진震은 수염⁶¹⁾·초

58) 丁若鏞, 「四箋小引」, 『周易四箋』(『定本』 제15책, 31쪽). “朱子於大壯, 以兌爲羊; 旅卦, 以離爲雉, 物象之從「說卦」者, 朱子之義也.”

59) 丁若鏞, 「括例表上」, 『周易四箋』 卷一(『定本』 제15책, 34쪽). “物象者, 何也? 「說卦傳」所云乾馬, 坤牛, 坎豕, 離雉之類, 是也. 文王、周公之撰次『易』詞, 其一字一文, 皆取物象. 舍『說卦』而求解『易』, 猶舍六律而求制樂. 此之謂物象也.”

60) 丁若鏞, 『周易四箋』 卷八(『定本』 제16책, 322~323쪽). “九家新說, 有正有謬, 逐一訂定. 又取『易』詞(辭)有據者, 略爲之補入焉.”

61) 역자주: “震爲須”는 『주역사전』의 「설괘전」에 나오지 않으나, 논문의 원문에 있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목·배·수레·주머니·두斗⁶²⁾·깃발·궤籩⁶³⁾·제帝⁶⁴⁾·행인·노인·군자·선생·장수·인仁·왼쪽이 된다고 보완하였다.⁶⁵⁾ 다산은 문왕과 주공은 물상을 근거로 역사易辭를 지었고, 물상은 이 역사와 일일이 대응되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지막에는 물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⁶⁶⁾

주자는 “괘는 본래 복희가 그린 것으로, 교역과 번역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역’이라 한다.”⁶⁷⁾라며, 『주역』의 ‘역易’을 해석하면서 교역과 번역의 의미를 언급했다. 호병문은 “복희가 그렸기 때문에 역역에는 교역과 번역의 의미가 있다. ‘교爻’라는 것은 음양의 대대함을 의미하고, ‘변變’은 음양의 유행流行함을 의미한다.”⁶⁸⁾라며, 교역과 번역에 대해 한층 더 진전된 해석을 하였다. 또한 『주역본의』의 곤괘坤 초육효를 해석하면서, “역은 교역이자, 번역이다. 교역이란 대대하는 음양을 말한다. … 번역이라는 것은 유행하는 음양을 의미한다.”라고 하였

(62) 역자주: 斗는 국자 형태의 그릇인 구기를 뜻하는데, 夜警이나 巡邏를 돌 때 치는 딱다기라는 뜻도 있다.(방인·장정옥, 『역주주역사전』 8권, 269쪽, 271번 각주 참고)

(63) 역자주: 籩는 黍稷을 담아두는 祭器를 뜻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宴會 등에서 곡류나 밥을 담은 禮器의 일종이다.(방인·장정옥, 『역주주역사전』 8권, 269쪽, 272번 각주 참고)

(64) 역자주: 다산에 따르면 “震은 하늘의 장자인 ‘帝’가 되며, ‘帝出乎震’이니 또한 ‘上帝’가 되는 것이다.”(震者, 天之長子, 所以爲帝, 帝出乎震, 亦以爲上帝也.)라고 한다.(방인·장정옥, 『역주주역사전』 8권, 271쪽)

(65) 상세한 것은 『周易四箋』 卷八(『定本』 제16책, 333, 335, 338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乾爲矢、爲階、爲郊、爲宗、爲賓、爲羸、爲富、爲白；坤爲田、爲朋、爲膚、爲溫；震爲須、爲草木、爲舟車、爲囊、爲門、爲旗、爲簋、爲帝、爲行人、爲老人、爲君子、爲師、爲將帥、爲仁、爲左.”

(66) 林忠軍, 「論漢儒易象觀與茶山的易象體系」, 『湖南大學學報』, 2016年 第1期.

(67) 『周易本義』 卷一. “其卦本伏羲所畫, 有交易、變易之義, 故謂之易.”

(68)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卷一, 『儒藏精華編』, 北京大學出版社, 2014, 13쪽. “以伏羲所畫, 則易有交易、變易之義. 交者, 陰陽之對待; 變者, 陰陽之流行.”

다.⁶⁹⁾ 다산은 주자와 호병문의 ‘교역’과 ‘변역’의 개념을 받아들여 다양한 패상들을 구별해냈다. 그는 “추이라는 정통적인 의미 이외에도 세 가지 역이 더 있다. 첫째는 교역이며, 둘째는 변역이며, 셋째는 반역이다. 복희가 애초에 패를 그릴 때, 8패에 입각하여 64패의 중패를 만들었다. 태패의 상하를 교체하여 비패를 만들고, 익패의 상하를 교체하여 항패를 만드니, 이것을 일러 교역이라 한다. 그리고 6위가 모두 변하면 그 덕이 서로 반대로 되는데, 준패가 정패로 되고, 몽패가 혁패로 되니, 이것을 일러 변역이라 한다.”⁷⁰⁾라고 하였다. 다산은 「교역표」와 「변역표」⁷¹⁾를 작성했는데, 그러나 그의 교역과 변역의 함의는 주자와 호병문의 것과 같지 않다. 주자와 호병문의 교역은 음양이 교착하며 대대하는 패를 가리키며, 변역은 음양이 서로 변하여 패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주희는 “교역은 양이 음과 교착하고 음이 양과 교착하는 것으로, …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고, 산과 못이 기를 통한다.’고 운운한 것과 같다. 변역은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것으로, 노양이 변하여 소음이 되고 노음이 변하여 소양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점치는 방법이다. 가령 낮과 밤, 추위와 더위, 굶핍과 땀, 오고 감과 같다.”⁷²⁾라고 해석했다. 호병문은 『주역』 상·하경의 64패를 음양의 다소多少로 나눈 것과, 태패와 비패, 감패와 리패, 함패와 항패, 기제패와 미제패의 음양이 서로 교착하는 것과 교착하

69) 위의 책, 21쪽. “易, 交易也, 變易也. 交易者, 對待之陰陽. ……變易者, 流行之陰陽.”

70) 丁若鏞, 「括例表下」, 『周易四箋』 卷四(『定本』 제15책, 331쪽). “推移正氣之外, 尚有三易: 一曰交易, 二曰變易, 三曰反易. 庖牺畫卦之初, 因八爲重, 泰交爲否, 益交爲恒, 此之謂交易也. 六位皆變, 厥德相反, 屯變爲鼎, 蒙爲變革, 此之謂變易也.”

71) 丁若鏞, 「括例表下」, 『周易四箋』 卷四(『定本』 第15冊, 331쪽).

72) 黎靖德, 「易」, 『朱子語類』 六十五, 中華書局, 2007, 1605-1606쪽. “交易是陽交於陰, 陰交於陽, ……如‘天地定位, 山澤通氣’云云是也. 變易是陽變陰, 陰變陽, 老陽變爲少陰, 老陰變爲少陽, 此是占筮之法, 如晝夜寒暑屈伸往來者是也.”

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역과 변역을 설명하였다.⁷³⁾ 그러나 다산의 교역은 하나의 중괘에 속한 내괘와 외괘가 교착하는 것으로, 즉 우변의 '상하호역上下互易'에 해당한다. 변역괘는 두 괘의 괘획이 상반되는 것을 가리키며, 바로 우변의 '반괘反卦'와 공영달의 '변괘變卦'에 해당한다. 분명한 것은 다산의 '교역'과 '변역'은 주자와 호병문의 설과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호병문이 주자역학을 독실하게 믿었고, 주자역학을 전승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중지로 삼았기에, 의심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다산은 달랐다. 주희의 역학을 존중하면서도 맹종하지는 않았으며, 주자의 선천학과 괘변설 등에 대해 비판한 것처럼 감히 주자역학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이 중국 고대 한·송 이래의 역학자들의 역학사상을 검토하여, 추이·호체·물상·호변의 4가지 강령을 핵심으로 하는 상수역학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자역학을 해석하고 그 뜻을 밝히는 것을 중지로 삼은 호병문의 역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호병문은 오징과 함께 원대 역학의 대가이다. 호병문은 가학을 계승하고 주자역학을 숭상하며 주자역학의 본의本義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주석을 달면서 주자의 『주역본의』와 『역학계몽』 등의 저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주희의 『주역본의』를 해석하면서 『주역본의통석』을 완성하였고, 『주역본의』의 고유하고 진실한 의미를 다시 밝혀내어, 당시 주자역학에 대해 오독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동시대 의 역학자들과 함께 학문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주자역학의 지위를 확

73) 자세한 것은 『周易本義通釋』 卷一, 『儒藏精華編』 第6冊, 北大出版社, 2014, 13-14쪽을 보라.

립했다. 다산은 독특한 역학적 시각으로 호병문 역학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편으로는 주자 역학을 전승함에 있어서 호병문 역학의 역할과 지위를 살펴, 호병문이 주자 역학의 적전자이며, 주자 역학의 상과 수에 대해 밝힌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역학적 입장에서 호병문 역학을 이성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자신이 이해한 것과 부합하는 내용은 긍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였다. 호병문이 괘변·호체·괘상을 논하였고, 다산도 괘변·호체·괘상을 논하면서, 호병문의 흔적을 뚜렷이 지니게 된 것처럼, 다산 역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호병문 역학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다산 역학이 호병문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주자 역학을 통해서이다. 바꿔 말하면, 호병문이 다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산이 처했던 시대에는 주자 역학의 지위가 높았고,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역학자들이 주자 역학을 존송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주역본의』는 당시 학자들이 주자역학을 연구하는 권위 있는 경전이 되었다. 그리고 호병문은 '주자의 적전'이며, 『주역본의통석』은 『주역본의』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다시 드러냈으므로, 다산 등의 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역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다산이 호병문의 일부 역학적 관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니, 다산 역학이 형성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산이 호병문의 역학적 관점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는 주희와 호병문 외에도 한대 역학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령 호체·괘변·괘상·효변설 등은 모두 한대의 경방과 초연수, 정현, 순상, 우변, 구가역 등의 상

수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⁷⁴⁾ 양송시대 및 그 이후인 정형程迥, 주희, 호방평, 호일계, 래지덕, 이광지 등의 역학자들도 다산 역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산의 다양한 역학적 관점은 한·송 역학에서 비롯되었거나, 한·송 역학을 비판하고 개조하고 통합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다산 역학의 독창성은 호병문 역학과 함께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호병문 역학이 다산 역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다산 역학의 사상적 연원 및 그 형성과정을 밝히기에 부족하다.*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13일, 심사확정일 2023년 4월 3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11일)

74) 자세한 것은 林忠軍의 「다산의 한대 상수역학에 대한 검토와 평가」(『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를 보라.

* 번역: 리미연(李美燕, 경북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감수 및 역자주: 석미현(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참고문헌

- 胡炳文,『周易本義通釋』,『儒藏精華編』,北京大學出版社,2014.
- ,『雲峰集』,文淵閣四庫全書.
- 丁若鏞,『周易四箋』(『定本』第15·16冊),俟菴出版社,2012.
- ,『易學緒言』(『定本』第17冊),俟菴出版社,2012.
- 程頤,『程氏易傳』,文淵閣四庫全書.
- 朱熹,『周易本義』,文淵閣四庫全書.
- 黎靖德,『朱子語類』,中華書局,2007.
- 宋濂,『元史』,中華書局,1976.
- 黃宗羲,『宋元學案』,中華書局,2007.
- 吳雁南等主編,『中國經學史』,福建人民出版社,2001.
- 林忠軍,『象數易學發展史』第二卷,齊魯書社,2008.
- ,「다산의 한대 상수역학에 대한 검토와 평가」,『다산학』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
- ,「論漢儒易象觀與茶山の易象體系」,『湖南大學學報』,2016年 第1期.
- ,「論丁若鏞推移說與漢宋易學」,『다산학』25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4(『周易研究』, 2015年 第3期).
- ,「中國爻變說與韓國丁若鏞爻變哲學」,『學術月刊』, 2018年 第



10期.

方仁,「茶山の兩互作卦法」,『周易研究』,2017年 第5期.

국문요약

원나라에서 주자를 존경하는 학풍에 영합하여 주자의 고향에 있는 호병문은 가학을 계승하고 주자역학을 고양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주자역학의 본의를 탐색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역학을 형성하였다. 그가 저술한 『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은 『주역본의』의 고유하고 진실한 의미를 재현하고 천명하며, 당시에 주자역학에 대한 오독을 바로잡고 동시대 역학자들과 함께 주자역학의 학술적과 정치적 합리 위치를 확립하였다. 다산은 독특한 역학 시각으로 호병문 역학을 반성하고 검토했으며 호씨의 역학에 대해 비교적 이성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으로는 주자역학을 전승하는 데 호씨역학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역학 입장에서 호씨 역학의 시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다산 역학의 형성은 호병문 역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호씨가 괘변, 호체, 괘상을 논하였고, 다산도 괘변, 호체, 괘상을 논하였으니 호씨의 흔적을 뚜렷이 띠고 있다. 호씨가 다산의 역학에 미친 영향은 주자역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산이 처한 시대에는 대부분 역학자들은 주자역학을 존경하거나 주자 역학을 해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는데 호씨는 “주자의 적전(嫡傳)”으로 그의 『주역본의통석』은 다산 등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 역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다산이 호병문의 일부 역학 관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는 다산의 역학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산이 호병문의 역학 관점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가 있는 것인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희, 호병문 이외에 다산은 한나라 역학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역학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추이, 호체, 물상, 변효라는 사강목의 상수역학 체계를 구축했다. 이 때문에 다산 역학과 호병문의 주자역학 해석을 취지로 삼는 역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호병문 역학이 다산 역학에 미친 영향만으로 다산 역학 사상의 연원과 형성을 밝히는데 부족하다.

주제어 | 주희 역학, 호병문 역학, 정다산 역학.

